

다시, 봄: 샘물의 첫 페이지



▲ 왼쪽 중등 사진, 오른쪽 고등 사진



Q.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시간과 그 이유

양준우: 컨퍼런스 중, 11학년이 네팔/국내 비전트립, 자경서, 자주, 멘토멘티 네 카테고리로 나누어 10학년에 그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소개해주는 시간인 고등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박람회의 모든 시간은 저희 11학년이 10학년들에게 정확하고 재미있게 소개해 주기 위해 모두 힘써 오로지 저희 11학년이 다 계획한 시간이었기에 고등 박람회가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박세영: 저녁 집회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수련회 집회와는 다르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어서 더욱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강은성: 과자집 만들기, 예배, 단체게임, 기도제목 적은 종이로 딱지 접기가 했던 활동 중 가장 재미있던 축에 속했던 것 같고, 후배들과 어울려 할 수 있었던 활동이라 기억에 납니다.

Q. 봄 컨퍼런스 전반적인 느낌점

양준우: 작년 봄 컨퍼런스에서는 10학년으로서 그저 리더인 12기가 계획했던 일정들을 따라가기만 했는데 올해는 13기가 컨퍼런스의 시간의 일부분을 계획하고, 리더로서 먼저 그 봄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또 준비한 대로 잘 마친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하고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굉장히 은혜롭고 좋았던 예배를 올해도 많은 은혜 안에서 드리면서 봄 컨퍼런스의 진정한 꽃이 결국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이 고등 봄 컨퍼런스라는 행사가 끊기지 않고 영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세영: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게 많은 활동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 컨퍼런스를 통하여 공동체가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이 엄청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강은성: 11학년이 되고 처음 참여했던 컨퍼런스인 만큼 13기가 앞으로 어떻게 리더로 세워질지 기대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후배들과 더욱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다시 마주한 샘물의 봄. 조금씩 모습을 보이는 꽃들처럼 샘물인도 새 계절을 맞이한다.

지난 3월, 봄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중학교에서는 ‘새 마음, 새로운 하나’라는 주제로, 고등학교에서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주제로 2025년 봄 컨퍼런스 기간을 보냈다.

중학교에서는 8, 9학년이 조를 나눠 씨클 안에서 신입입생들을 위한 규정을 연극으로 만들어 준비하고 발표했다. 샘물인 모두가 규정을 한 번 더 되새겨 보는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알아가고 하나 되는 공동체 활동도 진행되었다.

7학년은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누룩을 태우는 활동을 통해 마음받을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또 자경서 앞부분에 있는 만다라트를 적으며 올 한 해 17기가 샘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계획했다.

8학년은 레크레이션 등 여러 활동들을 통해 서로 연합하여 하나되는 경험을 했다. 더불어, 한 자리에 모여 1년동안 16기를 표현할 슬로건 문구를 제작하고 발표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9학년은 공동체 안에 속한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연간 계획을 세움으로 하나님 안에서 중학교 마지막 생활을 어떻게 마무리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또 학년 기도회로 15기 공동체가 단단하게 서로 이어지는 경험을 했다.

중학교는 봄 컨퍼런스 기간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로가 하나되는 의미있는 마무리를 지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달리 학교 내부가 아닌 외부로 나가 공동체가 함께 2박을 지내며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 중 리더인 13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공동적으로, 이번 고등 봄 컨퍼런스에서는 10, 11학년이 가까워지며 13기가 리더로서 샘물의 문화를 세우는 활동들이 주가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가정을 잇는 따뜻한 온기, ‘가정방문’

“가정방문을 통해 샘물을 향한 마음이 한층 깊어졌어요.”



▲ 8학년 신우리 학생 가정방문의 모습

새학기가 시작될 때 제일 첫 일정은 단연 가정방문이다. 2025년도 예외 없이 가정방문으로 새학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었다. 그럼 매년 새학기마다 가정방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무팀장이신 마루샘은 가정방문의 목적을, “새 학년을 시작하며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가정과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그리고 담임교사와 부모님과 의 만남을 통해 제자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돕기 위함이에요” 라고 밝히셨다. 이를 통해 필자는, 가정방문이 단순히 선생님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새학기에 적응하는 학생들을 누구보다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열정이라고 느꼈다.

다음은 직접 가정방문을 경험하는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과의 이야기이다. 9학년 한 학생은 새학기에 진행되는 가정방문에 대해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생의 가정과 상황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다. 덧붙여 학생은 가정방문은 몰랐던 것을 새롭게 깨닫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라며, 가정방문을 ‘무지함을 덮어가는 과정’이라 표현했다.

더불어 한 학부모는 가정방문에 대해 “몰랐던 아이의 학교생활과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선생님을 통해 직접 듣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가정방문을 하는 동안 ‘감사’라는 감정이 가장 큼니다.”라며 가정방문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 선생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가정방문은 ‘샘물배움공동체를 삶으로 느끼는 시간’이라 정의했다.

마지막은 현재 9학년 담임을 맡고 계신 모들샘의 이야기이다. 첫 가정방문이신 모들샘은 샘물의 가정방문에 대해 “가정방문을 통해 샘물을 향한 마음이 한층 깊어졌어요.” 라고 말하셨다. 가정방문을 통해 한 가정, 한 가정을 방문하면서 잘 해내고 싶다는 기대와 희망이 감사로 다시 느껴졌다고 말씀하셨다. ‘가정방문 후 새롭게 다짐하게 되는 것은?’이라는 질문에 모들샘께서는, 어머니들은 늘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적은 시간이라도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비치셨다. 현재 2년째 담임을 맡고 계신 모들샘은 가정방문을 통해 아이들을 면밀히 지도하고 잘 관찰하면서 키워야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생겼다고 하셨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서로 다른 위치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샘물중고등학교의 가정방문은 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게 해주는 듯하다. 앞으로 가정방문이 샘물중고등학교만의 전통이 되어 샘물인의 따뜻한 온기가 이어지길 바란다.



▲ 9학년 이산이 학생 가정방문 후의 모습

박연수 기자

자기주도학습캠프 인터뷰



▲ 고창캠프 사진

8학년 정지호

Q. 자기주도학습캠프를 다녀온 후 얻은 것이 있나요?

자기 주도적인 공부법과 영어 부분에서도 꽤 성장을 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선배나 친구들 간의 좋은 관계를 얻은 것 같아요.

Q. 자기 주도 학습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아이패드로 만지면서 숙제도 하는 등 마는 등, 옆 친구랑 떠들고 귀찮고 싫었는데 2주라는 시간 동안 자주만 하니깐 점점 익숙해지고 습관이 잡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시간이 있는 게 어디야’ 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열심히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자주 시간 끝나고 자기 전 잠깐의 여유 시간에 자주할 시간을 주셨는데 그때도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집중력도 되게 높아진 것 같고... 자주 시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Q. 캠프에 갔다 오고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캠프에 갔다 온 이후로 평소에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관심이 없고 맨날 놀기만 했는데 갔다 온 이후로 자기주도 학습에 관심이 생기고 뭔가 습관이 약간 잡힌 것 같았고 혼자서 공부하려는 약간 욕구 같은 게 생겼어요.

Q. 다음에 자기주도캠프가 또 있다면 캠프 가는 멤버들에게 추천을 할 의향이 있나요?

정말 추천해 주고 싶어요. 가면 되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항상 배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많이 걱정하지 않고 그냥 정말 좋은, 진짜 좋은! 기회예요. 이거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어서 절대 놓치지 말라는 말 해주고 싶어요.

Q. 캠프에서 부모님이 가장 보고 싶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급식을 먹으면서 엄마가 해준 밥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 일주일엔 진짜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옷이나 수건, 이불들... 널브러져 있고 방이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때마다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평소에는 듣기 싫었는데 그때는 좀 그리웠고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Q.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약간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선생님이 11시까지 자라고 하셔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닦고 있는 칫솔을 닦은 다음에 캐리어에 던졌어요. 근데 그 칫솔이 열려 있는 창문 밖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칫솔이 없어가지고 물컵에다가 물이랑 치약이랑 타가지고 양치를 했는데 너무 고생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팀 프로젝트 하면서 선생님들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때 칫솔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기적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안예나A 기자

9학년 송해민

Q.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다녀온 후 깨달은 것이 있나요?

기존에는 항상 클래스 카드로 숙제도 하고 단어도 외우다 보니까 클래스 카드가 없으면 뭔가 단어를 못 외울 것 같은 강박 같은 게 있었는데 매일 엄청난 양의 단어를 외우면서 클래스 카드 없이 단어를 외우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바뀐 부분은, 가기 전까지는 꿈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많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막함이 있었는데 캠프 기간 동안에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꿈에 대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기도 하고 또 꿈을 정확히 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약 2주 동안 갔다 오셨는데 캠프 생활은 어땠나요?

솔직히 말해서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자 해서 간 건데 그 의도에 맞춰서 생각해 보았을 때는, 그 기간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어떤날 저녁에는 평소에 집에서 있었을 때보다 더 빨리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활 규칙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Q.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희 방에 서지영이라는 친구가 그 캠프 당시 생일이어서 역물카로 8학년 친구들과 생일이었던 친구를 위해 케이크를 얻으려고 저희가 과자 박스를 온몸에 숨겨가며 준비했는데 그 친구가 울면서 옆방에 케이크를 돌리러 갔다가 케이크를 얻어서 2차로 또 울었던 그 일이 가장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Q. 캠프에서 부모님이 가장 보고 싶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핸드폰 잠깐 받았을 때 전화를 했는데, 장기간 동안 집에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 처음이기도 했고 또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고 그런 게 힘들었어서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Q. 영어 수업은 어땠나요?

제가 반이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선생님들이 수업도 잘 해 주시고 그래서 할 만했던 것 같아요. 또 유진 초이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아이들이 항상 즐겨 할 때마다 선생님께서 성대모사를 해 주셨거든요. 지드래곤 성대모사랑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가 너무 똑같아서 그 덕분에 수업을 별로 안 졸고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방 생활은 어땠나요?

저희 방은 굉장히 깨끗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방이 후배와 선배가 가장 친해지게 된 방인 것 같아요. 후배들이 선배 말을 잘 따라주기도 했고 먼저 친하게 다가와 줘서 고마웠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친해져서 그런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게 재미있고 웃겼어요. 이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말은 리더의 자리였는데, 그런데도 나를 부족했지만 아이들이 많이 따라줘서 고마웠습니다.

이루리 기자



▲ 자기주도학습캠프 사진(고창에서)

국토순례, 선후배가 함께 걸은 성장의 길

2025년 국토순례에서는 13기 학생들이 조장과 부조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조원들을 이끌었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은 국토순례를 함께한 모든 이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후배들에게는 중요한 본보기가 되었다.

1조 조장인 이길 학생은 “아직 11학년이라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고, 11학년으로서 그리고 1조 조장으로서 국토순례에 다녀오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라며, “7학년이었던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11학년이 되어 나보다 어린 친구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뿌듯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길 학생은 “우리 윈더폴 친구들아!! 이번에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국토순례를 너희와 함께 걸게 되어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기뻐요. 이 추억은 평생 갈 것 같다. 나중에 너희도 꼭 국토



▲ 1조 국토순례 사진

순례 후배들을 이끄는 멋진 선배로 성신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쭉 파이팅!”이라며 1조 조원들에게 고마움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국토순례의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9조 소은 학생은 “후배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작년엔 선배와 후배 비율이 비슷했는데, 올해는 선배는 두 명, 후배는 무려 13명이었거든요.”라며 “올해는 후배들의 가방을 들어주기도 하고, 어색한 동생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하면서 중학생 때보다 선배 노릇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내년엔 조장과 부조장으로 조를 이끄는 자리에서의 책임감에 대해서는 “매년 조장, 부조장 선배를 보면서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 조 모두를 챙길 수 있을까?’ 생각하며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번 순례길을 걸으면서 선배들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긴급구조의 멋진! 조장 서현 선배와 부조장 세현 선배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 그대로 따라가면, 내년에는 우리 조를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17기 7학년 학생들은 샘물에서의 첫 국토순례를 경험하며 긴장과 걱정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걸어냈다. 특히 넷째 날에는 완주를 하며 대견함을 자아냈다. 5조의 권예성 학생은 “선배님들이 다들 너무 친절하셨고, 국토순례를 통해 멋진 선배님들과 한층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선배님들 짱이에요”라며 5조 선배들을 향한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비가 왔는데, 선배님들이 가방도 들어주시는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라며, 특히 비 오는 날 선배들의 배려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내년에는 막내가 아닌 선배로서 국토순례에 참여하게 된다. 17기가 후배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지 궁금하다.

2025 국토순례를 요약하다

2025년 샘물은 1년 중 가장 큰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토순례’를 다녀왔다. 올해 국토순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4개 조로 나누어졌고, 13기가 조장과 부조장을 맡았다. 4월 7일부터 18일까지는 학교 근처에서 도보훈련을 진행하며 국토순례를 준비했다. 이 훈련에는 12기 샘물인들도 함께 참여해 후배들을 응원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국토순례를 배웅해주었다. 4월 18일, 마지막 도보훈련을 마친 후 발대식이 진행되었고, “언약의 길, 증인의 삶, 기뻐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2025년 샘물 국토순례가 시작되었다. A팀은 4월 21일부터, B팀은 4월 22일부터 강화도에서 본격적인 국토순례를 시작했다.

첫째 날, A팀은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서 도심을 지나 돌이 많은 작은 언덕을 오르며 국토순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첫날이라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서로 응원하며 힘을 합쳐 여정을 마무리했다. 그날의 경험을 조별 모임에서 나누고,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 느낀 것을 기록하면서 하루를 정리했다. 둘째 날, 비가 내리며 날씨가 악화되었지만, 샘물인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굳건히 걸음을 옮겼다. A팀은 산을 오르는 일정이었고, B팀은 강화도의 첫날 여정을 시작했다. 비로 인해 길은 진흙으로 변하고 신발과 양말은 흠뻑 젖었지만, 서로 손을 잡고 도와가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다. 비가 많이 내려 예정된 경로를 모두 걸을 수는 없었지만, 샘물인들은 끝까지 함께하며 여정을 마칠 수 있었다.

셋째 날, A팀은 건물들이 있는 작은 언덕을 오르고, B팀은 전날 A팀이 갔던 산을 오르는 일정이었다. A팀은 길을 잘못 들어 내리막길을 올라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예수님께서 걸으신 고난의 길을 떠올리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힘든 여정을 마쳤다. 숙소에 돌아와서는 ‘꿈꾸라’ 시간을 가지며 피로를 풀었다.

넷째 날, A팀은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며 동막해변을 목표로 열심히 걸었다. 마지막 날이라 발걸음이 무겁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지만, ‘이 길만 지나면 끝난다’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걸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니 어느새 종착지에 도달했고, 국토순례의 여정이 마무리됐다. 끝까지 걸어온 조원들에게는 조장이 메달을 걸어주며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완주를 축하했다. B팀도 하루 늦게 같은 일정을 소화하며 완주를 해냈다.

국토순례를 마친 후에는 세족식이 진행되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샘물인들은 서로에게 롤링페이퍼를 쓰며 수고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5년 샘물 국토순례는 샘물인들에게 깊은 의미와 감동을 남기며 올해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A팀 국토순례 사진



▲ B팀 국토순례 사진

국토순례의 분위기 메이커, ‘꿈꾸라’

이번 꿈꾸라는 작년과 동일하게 풀뿌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6학년 환영회가 이번 2025년 꿈꾸라의 시작을 알리는 순서였다. 무대 중간 통로로 6학년들이 입장하면서 풀뿌리들이 사탕 목걸이를 걸어주며 뜨겁게 환영하였다. 이어지는 순서에는 6학년의 위식으로 첫 무대를 열었다. 이번 올해는 10학년 이강민 학생과 9학년 표가온 학생이 MC를 맡았다. 그 후, 고등 풀뿌리의 ‘수중 발레’로 분위기가 한층 올라갔다. 다음 순서로는 국토순례 때 받은 사연들을 소개하는 순서였다. 감동적인 사연, 웃긴 사연으로 샘물인들 모두가 공감하고 웃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남매들의 공연이었다.

다섯 남매(서지영/서정원, 박세영/박서연, 육아인/육성재, 반해빈/반해성, 김선겸/김선율)의 노래에 이어 특별히 졸업생이 있는 남매(양준영/양준우/양지우)의 공연이 이어졌다. 졸업생 선배, 선후배, 친구들을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기회여서 샘물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 공연이었다.



▲ 국토순례 꿈꾸라 사진

작년과는 달리 새로운 코너인 동명이인 게임이 진행이 되었는데, 온유 팀(기온유/남온유/정온유/박온유/변온유)과 예나 팀(이예나/안예나/안예나B/조예나/강예나)으로 나뉘어 게임을 하는 코너였다. 분위기가 차츰 사그라들 때쯤, 중등 풀뿌리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풍선’이라는 곡으로 춤을 추다가 풍선을 날리며 마무리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순서가 뒤를 이었다. 먼저는 조장으로서 섬기고 있는 13기 샘물인들, 다음으로는 국토순례에 힘써주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졸업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에 또 새로 생긴 코너가 있었다. 바로 조의 특징들 듣고 자신의 조를 맞추는 코너였다.

연달아 이번 국토순례의 조장, 부조장을 맡은 13기의 다양한 공연이 있었으며, 이를 보는 조원들은 조장과 부조장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작년과 동일하게 이번 꿈꾸라의 하이라이트도 역시 모든 샘물인들이 다 같이 부른 열정적인 찬양이었다.

내년에도 이번만큼 알찬 꿈꾸라를 기대해 본다.

함께 지어져 가는 시간, 세족식

4일차에는 샘물인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 진행되는 순서가 있다. 바로 세족식이다. 이번 세족식은 작년과 동일하게 각 조에 계신 선생님들이 샘물인들의 발을 씻겨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샘물인들은 다 같이 모여 기도로 세족식을 준비했다. 아티샘이 나오셔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고 샘물인들은 서로를 축복했다. 그리고 나서는 아리샘께서 예수님이 고난을 치르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해주시신 후, 세족식이 시작되었다. 선생님들께서는 섬김의 마음으로 샘물인들을 맞이해주셨다. 그 후, 샘물인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주셨다. 샘물인들은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선생님들께 자신의 기도제목, 국토순례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 등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다. 발을 다 씻으면 선생님들께서 손수 학교 이니셜이 새겨진 양말을 신겨주시고 샘물인들이 고백한 기도제목으로 안아주시면서 기도해주셨다. 13기 샘물인들은 세족을 위한 물을 준비하고 버리고를 반복했다. 이 또한 13기 샘물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세족식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었다.

세족식을 한 신입입생들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온 편지가 전해졌다. 첫 국토순례를 수고했다는 위로와 격려의 마음이 잘 느껴졌던 부모님들의 편지였다. 이번 세족식으로 샘물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선생님들은 샘물인들의 기도제목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 세족식 사진

T(특별하고) M(매력있는) I(이야기)

어느덧 교정을 가득 채운 파릇파릇한 잎들, 싱글싱글 여름의 시작을 알린다. 새로운 계절인 만큼 설레고 유쾌한 일들을 찾아보았다. 먼저, 각기 다른 매력으로 각 학급을 채워주시는 예원샘과 한울샘에 대해 알아보았다. 처음으로 답임을 맡으신 두 선생님의 TMI는 다음과 같다.

한울 선생님의 특징 3가지

이예진 학생: 폴로 옷 많이 입으시고 안경이 선글라스가 되는 안경이에요. 또 항상 11학년 3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주시고 섬겨주세요.

김선진 학생: 닫는 말 할 때 안내할 내용을 자주 까먹으시고 엉뚱하면서 귀여운 매력을 갖고 계세요. mbti T인 것 같이 정말 현실적이십니다.

답임 선생님께 하고싶은 말

이예진 학생: 여러 방면에서 3반을 도와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진 학생: 요즘 계속 짜증만 내서 죄송합니다. 우리반이 말도 잘 안듣고 자기주장이 강한 친구들만 모여있는데 열심히 저희를 위해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샘의 엉뚱한 매력으로 11학년의 삶을 재밌게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한울샘의 한마디

저는 다이어리를 이용하여 날마다 아이들에게 전할 말과 일정들을 적는 습관을 들여서 저의 공백을 매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는건, 아이들이 잘 알고있는가를 다시 짚어보는 것이에요. 선생님은 학창시절에 영어를 잘하지 못했고, 영어에 한이 맺혀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자 언어적 차원에서, 학생들과의 공감대, 그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학급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그 어떤 학년보다도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리더십이잖아요, 아직은 여름학기지만 남은 학기에 더욱더 빛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예원 선생님의 특징 3가지

육아인 학생: 간간해보이시는데 가끔 하나씩 빼먹으시고, 인간미가 있으세요. 특유의 말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잘 티내시지는 않지만, 보입니다.

박윤찬 학생: 개인 과외하듯 꼼꼼하게 학생관리 잘하세요. 또 노래 잘 부르시고 웃을 굉장히 잘 입으세요.

답임 선생님께 하고싶은 말

육아인 학생: 항상 우리 10학년 2반때문에 힘드실텐데 잘 챙겨주시고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찬 학생: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심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원샘의 한마디

두 친구의 의견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둘 다 선생님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샘물에서 선생님의 첫 제자들, 선생님의 첫 번째 제자로 만나게 되어서 고맙고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 11-3반 사진

서로를 관찰하고 기대하는 공동체로서, 그만큼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예나, 윤노엘 기자

샘물의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제1편

샘물의 뮤지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홍보와 한마디

하니샘: 뮤지컬은 연극과 노래와 춤이 같이 들어가는 종합예술이에요. 특히 고등 뮤지컬 동아리는, 초등 때부터 해왔던 무대 공연을 가장 완성도 있게 표현해낼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예전부터 축제 공연을 목표로 해왔고, 이번 무대도 축제 발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고등 뮤지컬 동아리는 기존의 유명한 작품들을 우리 학교로 가져와, 우리 학교의 색깔에 맞게 각색을 해서 공연을 합니다. 또한 축제공연인 만큼 러닝타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뮤지컬 상연 시간, 멤버의 성격, 남녀비율에 맞춰 각색을 합니다. 샘물에서 선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씁니다.

샘물에 역사가 있는 뮤지컬동아리, 학생들에 대한 기대나 격려의 한마디

하니샘: 선생님이 매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떤 아이들이 모이게 될지 기대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열정과 역량을 보면서 작품을 정합니다. 지금까지의 작품들도 그 열정이나 역량이 최대치가 되는 아이들을 보내주셨고, 이번에도 모인 친구들을 보면서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귀하고 선물같은 우리 친구들을 모아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샘물의 동아리 소개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다음 호에 소개 될 동아리도 기대해주세요!

이예나, 윤노엘 기자



▲ 뮤지컬 동아리 사진

샘물의 열기 ‘찬양팀 이야기’



▲ 아리샘의 찬양 집회 사진

우리 학교 찬양팀의 연습은 그들에게 서로가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에 찬양팀에서 활동 중인 박건호 학생과 아리샘을 만나, 연습 과정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그리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공동체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아리샘을 인터뷰했다.

아리샘은 매주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으로 노래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한다. 단지 멋진 목소리나 완벽한 음정보다, 아리샘은 찬양이 말씀과 함께 흐르기를 소망한다. “처음엔 늘 ‘목이 잘 나올까?’, ‘내 목소리가 괜찮을까?’ 같은 걱정이 앞서요. 하지만 그럴수록 다시 진짜 중요한 걸 생각하려고 해요.” 아리샘은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는 주간 말씀 본문을 되새기며 찬양을 준비한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먼저 듣고, 그 말씀이 샘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고민한다. 찬양곡 선정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다. 예배 시간은 길지 않지만, “신나는 곡 하나와 예배로 깊이 들어가는 느린 곡 하나”는 꼭 포함하려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따로 있다.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를 생각하며 곡을 골라요. 또 설교하시는 분이 어떤 본문을 전하실지 기도하며 함께 고민해요. 찬양과 말씀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리샘에게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고백이다. “제가 찬양으로 드리고 싶은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조차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찬양을 통해 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그녀가 찬양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아리샘의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다.

“팀원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다음으로 찬양팀에서 베이스로 섬기고 있는 박건호 학생을 만나 보았다. 그는 연습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연습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무리해요. 그 다음엔 콘티에 나온 곡들을 차례로 맞춰보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피드백하면서 잘 될 때까지 반복해요.”

하지만 연습이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다. 박건호 학생은 “연습이 잘 안될 때는 세션들끼리 악보를 보면서 어디가 안 맞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요. 그 후에 싱어들과 함께 다시 처음부터 맞추면서 해결해요.”

라고 말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속에서 팀원 간의 유대감과 책임감은 더욱 깊어진다고 한다.

마지막 질문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묻자, 그는 8학년 당시의 버스킹 경험을 떠올렸다.

“그때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마이크도 불안정했고, 소리도 잘 안 들렸죠.



▲ 고등찬양팀 연습 사진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당시 버스킹은 찬양을 향한 진심으로 더욱 간절했던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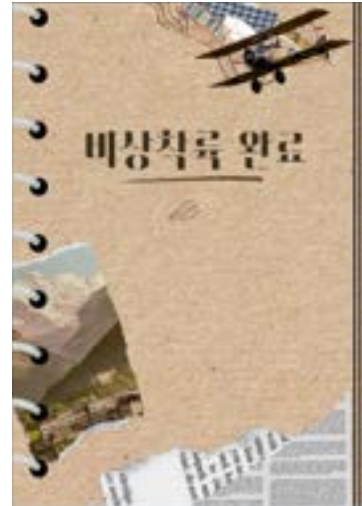
그는 끝으로 찬양팀 활동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다.

“가끔은 힘들기도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채워져 있다.

2025 샘물 그리다 수상작

그림 부문



우수 6조



최우수 2조



최우수 7조



우수 13조

전자수기집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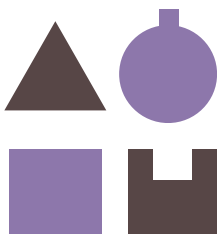
우수 1조



최우수 8조



장원 14조



편집장: 김시현B 손지민 오윤우

편집부: 안예나A 이루리 박세아 박연수 안예나B 윤노엘 이구하 이예나 차소원 정바다A

감수: 모들샘

*제보 또는 취재요청을 받습니다 : kwonb612@smca.or.kr